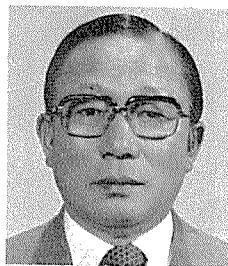


* 送年特集 / 1989年度 電子産業을 總點檢한다 *



'80年代를 보내면서

金洪燦 / 廣林電子工業(株)會長/本會 非常勤副會長

지난 數年間 花려한 기록들을 남기며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 經濟는 이제 '80年代를 장식하는 '89年 마지막 문턱에서 주춤하며 成長率은 두자리 숫자에서 7%정도 또는 그 이하, 輸出은 당초 예상치 680억불보다 크게 줄어 620억불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

이는 年初 우려하였던 바로써 막상 現實로 다가옴에 우리 一線企業經營人們은 이 어려운 現實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고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

돌이켜보면 '70年代 초·중반부터 基礎的인 범용 技術로 시작된 우리나라 電子産業이 '80年代에 들어서서 급속한 성장을 시현하며 급기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最尖端 技術製品으로 世界市場에 발돋움하여 生產額 기준으로 '87년에 174억불로 世界 6位(대한상의자료)로, '88년에는 韓國製造業中 1位의 產業으로 산업발전의 궤적 속에서 그 속도를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急成長하여 왔고 특히 '86~'88년의 3年間은 주변 상황의 호전으로 실로 보기드문 호황을 누려왔던게 사실입니다.

그러나 '89년도에 들어서서 더 한층 강화된 國際的인 保護貿易

장벽과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 및 全產業에 확산된 勞使紛糾 등은 花려했던 成長의 기록들을 차츰 무너뜨리고 있으며 비단 電子産業 뿐 아니라 經濟全般에 걸쳐 퇴조의 위기감을 팽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

특히 주목할 것은 제조업의 成長率이 '88년 3/4분기 중 15.7% 이었던 것이 '89년 3/4분기에 4.3%에 그치고 있으며 (한국은행 자료) 電子電氣製品의 輸出은 지난 10월 중 成長이 마이너스 5%로서 불황때 2.3%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

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급박한 역전은 高度成長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狀況結合 중의 하나로서 그동안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지난 '70~'80년대에 오늘의 우리 經濟로 成長시켜온 저력의 主人公들인 우리는 오히려 이 어려움에 의연히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.

그리하면 더한층 응집된 추진력으로서 승화되어 이 나라를 금후 10년이내에 世界一流의 先進國 대열에 진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

이러한 새로운 '90年代를 펼쳐 나가자면 우선 우리 企業人们뿐만 아니라 國家全體가 技術開發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. 치열한 경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과감한 投資를 바탕으로한 技術開發에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겠습니다.

이와 더불어 勞使의 斜기로운 화합에 의한 단결된 원동력이 있어야만 成長의 추진력이 형성될 수 있고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.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가 투쟁의 상대가 아닌 공동체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. 또한 이러한努力들 위에 더 기대해 보는 것은 최근 經濟活成化를 위해 취한 일련의 政府조치와 같은 政府의 역동적인 기관차 역할입니다.

끝으로 電子産業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서 왕성한 저력으로 이 시대의 역경을 극복하고 더한층 정진하시길 기대하오며 다가오는 '90年代에도 신의가호와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.